

하나됨과 나눔

“ 사랑, 서로 따뜻하게 대접하십시오 ”

< 베드로전서 4장 8-9절 >

- 역할공동체 실행위원회(3분기)가 오늘 오후 위원회별로 모입니다.
- 멋쟁이학교 테마여행이 10일(화)-13일(금)에 테마별로 진행됩니다.
- 공동체 운영위원회(39차)가 다음 주일 오후 2시에 모입니다.
- 다음 주일은 기독교교육주일입니다.  
오후 3시에 특강이 있습니다.(강사: 권혁신 목사, 새터마을교회)
- 석용범 박영선 집사님 가정이 9월 25일 이사하였습니다.  
경기도 의정부시 경의로 132번길 69. 푸르지오 더센트럴아파트

\* 고마움을 표해야 할 분들

나눔의 식탁 : 사역공동체 ( 감사 )

강단을 꽃으로 :

주일 교회 승합차 운행시간 오전 9시50분 의정부역 6번 출구 영풍문고 앞

##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사랑방공동체

11187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림길134-178  
http://www.sarangbang.org 전화:(031)544-1615 FAX:(031)544-1618

역할공동체 : 생활공동체 예배공동체 교육공동체 사역공동체 선교공동체  
선 교 지 : 타지키스탄 대만 일본 요르단 중국

제 40 - 41 호

2023년 10월 8일

# 사랑방공동체

TK2000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새 천년”

(고린도후서 13 : 13)

사  
랑  
방  
은

주인이 거하는 방, 사람을 만나는 방, 뜻을 모으는 방입니다.

## 선교바자회에서 느낀 협력의 감동

지난 6일 금요일, 화창한 햇빛과 시원한 바람 속에서 오랫동안 준비해왔던 선교바자회가 열렸습니다. 대만 선교의 장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많은 손길들이 과정과 결과까지 참여했던 한마당이었습니다. 꾸러기, 어린이, 멋쟁이 학생들뿐만이 아니라 어른들도 한참동안 마음을 불태우며 기다렸던 행사였습니다. 기부할 물건이 딱히 없어서, 새 것을 사다가 기부하는 분도 계셨다니 말이지요. 그렇거나 마음과 정성이 모여서 선교바자회는 감사하게도 성황리에 끝났습니다. 그리고 모인 물질들은 그 목적대로 전달될 예정이지요.

세상의 많은 활동들이 그러하듯이, 선교 또한 여러 사람의 협력으로 이루어집니다. 그 기나긴 과정과 맥락을 살펴보면, 하룻날의 바자회 또한 그 안에 포함될 것입니다. 많은 선교 활동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의 일정 선정에는, 성도들의 헌금을 전달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게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본인도 복음을 전하는 와중에 텐트를 만드는 생업에 종사하면서 비용을 충당하기도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포함한, 일련의 손길들이 모여서 사도들을 비롯한 선교사들은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요즘 볼 수 있는 아시안게임에서 나오는 스포츠 선수들 같지 않나요? 화면에서 쉽게 보이는 것은 선수뿐이지만, 그 뒤에는 감독, 코치, 의료진 등 다양한 서포터들이 버티고 서있습니다. 큰 대회에 이르기 위해서 거치는 과정을 보면 가족과 지인들의 지지, 고된 훈련과

정을 위한 지원(장소, 인원, 음식 등), 동료들과의 경쟁 등 무수한 요소들이 자리잡고 있지요. 한 명 또는 한 팀의 육성을 위해서 수십 수백명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며 실제로 동원됩니다. 그 어떤 것도 허투루 넘어갈 수 없는 중요한 역할들입니다.

이번에 대만이라는 먼 땅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선교바자회라는 장을 열었던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곳에서도 펼쳐지는 주님의 일에 사랑방공동체가 동참하고, 하나님나라의 건설현장에 벽돌을 올려놓은 셈입니다. 설령 참여했던 누군가에게 그런 마음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선교활동에 대해 자세히는 모를 꾸러기들이(그래도 알 건다 압니다) 부모님과 선생님의 보살핌 속에서 특별히 신나고 행복한 하루를 보냈다면, 그것은 그것대로 하나님의 은혜의 장에 함께 했다고 볼 수 있겠지요. 아마 많은 자녀들이 내년을 또다시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수많은 작은 물줄기가 모여 강이 되듯이 결국엔 선교로 귀결됩니다. 지금 이 글을 읽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도 누군가의 선교 덕분인 것처럼 말이지요. 이 모든 손길들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작든 크든, 물질이든 비물질이든, 우리 자신을 계속 나눔으로서 하나님과 누군가의 기쁨이 되고 보람을 얻게 되기를 바라고 소망해봅니다.

디아코니아사랑방 이어진 전도사

이렇게 돌아보고 난 다음에, 나는 비로소 관리들에게 말하였다.  
**한주간의 말씀**이 아는 바와 같이, 우리는 지금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고, 성문들은 불탔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읍시다.  
남에게 이런 수모를 받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할 것입니다.”  
< 느헤미야서 2장 17절 말씀 >

### <수요기도회>

인도 : 최기찬 전도사  
찬송 : 220 336 / 221  
기도 :  
성경 : 고린도후서 1장  
제목 : 서로 위로하며 사랑거리가 됩시다

#### 1-2 인사말

해석: 지도자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화를 이루려는 사람들이다.  
적용: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감사)와 평화를 이루자.

#### 3-11 환난을 대하는 자세

해석: 그리스도인으로써 겪는 환난(고난)을 성경적으로 이해하자.  
적용: 그리스도인으로써 환난 중에 있을 때 희망을 갖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서로의 고난과 위로에 동참해야한다.

#### 12-14 서로의 사랑거리

해석: 그리스도 안에서 만남은 서로를 사랑거리로 삼아야 한다.  
적용: 하나님의 은혜(사랑)으로 이해하며 대하자. 사람을 대할 때 순박함(거룩함)과 진실함으로 대하자. 선교사님들을 사랑하자.

#### 15-24 바울의 방문 계획

해석: 교회의 흐름, 하나님의 계획, 역사 가운데 있다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  
적용: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교회가 성장하도록 기도하고 기쁨을 누리도록 하자.

### 진아의 이야기

안녕하세요 저는 멋쟁이 5학년 학생 화진이라고 합니다.

처음으로는 멋쟁이학교를 다니는 그 짧은 두 달 동안 가르쳐주시고 돌봐주신 선생님들과 같이 생활하고 공부하는 멋쟁이 전교생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다른 학교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다니던 학교의 학생들은 아직도 “시험을 위한 교육”이런 큰 지옥탕같은 현상에 빠져 있습니다. 빠지면 빠질수록 학교와 생활을 나쁜 방향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멋쟁이에 오면서 그런 학교에 대한 이성적인 인상 중에서 미묘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처음엔 거의 완전히 낯선 사람들과 학교를 다녀서 매일매일 긴장과 불안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생각해보면 저를 도와주신 선생님들과 친구들 덕분에 빨리 학교생활을 적응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사랑방식구들께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한국에 처음 왔을 때나 이사할 때나 지금이나, 방방곳곳에서 도와주시고 계십니다. 어떻게 감사드려야할지 몰라서 당황한 마음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한국에 식구가 많아서 너무 감사한 일이지요?

이번 여름 방학에 멋쟁이학교에서 제일 친한 친구와 같이 중국으로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중국 자연 경치가 정말 아름답고 역사 문화가 정말 깊고 다른 면도 아름다웠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앞으로 혹시 모르겠지만 중국에 여행 가고 싶은 친구들은 저한테 연락해 주세요, 좋은 가이드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날씨도 많이 추워집니다. 이번 겨울에 우리 온 사랑방 식구들 건강하게 다같이 따뜻한 마음으로 따뜻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 주일공동예배

오전11시

인도자 : 정재훈 목사  
설교자 : 권재만 목사

### 하나님의 부르심과 응답

- 초청의 말씀
- \* 예배의 찬송
- \* 기원의 기도
- \* 기원찬송

마태복음 28 : 19-20 인도자  
67 다함께  
영광 영광 인도자  
다함께

### 죄의 고백과 용서

- \* 참회의 기도
- \* 용서의 말씀
- \* 신앙고백
- 고백의 찬송
- 공동기도
- 목회기도

고린도후서 5 : 17 인도자  
524 다함께  
다함께  
인도자

### 하나님의 뜻과 말씀선포

- 성경낭독
- 성가대 찬양
- 설교 "바른 안목을 가지도록 하십시오"

느헤미야서 2 : 11-20 설교자  
349 비움사랑방  
권재만 목사

### 의탁과 섬김의 삶

- 의탁의 기도
- 응답의 찬송
- \* 봉헌기도
- \* 영광찬송
- \* 위탁의 말씀
- \* 강복기도

212 설교자  
다함께  
인도자  
다함께  
설교자  
설교자

주님의 사랑이

\* 표는 일어서서 예배를 드립니다.

† 헌금은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자유롭게 하십시오.

예배를 안내 : 나송주 이윤희 / 봉헌위원 : 최신혜 / 꽃꽂이 : 김영화  
돕는 이들 반주 : 김영희 이근자 정다운 임은숙 박민정 안지운  
서진솔 석지인 옥대철 이예은 김보경 진시우 진나우

예 배

## 공동기도문

인생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로 이끌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현실을 바르게 인식할 수 있는 안목을 주십시오.  
아멘.

## 바른 안목을 가지도록 하십시오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려 하다. 느헤미야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조용히 밤에 성벽을 둘러보았습니다.<12~16> 그 후, 관리들을 모아 성벽을 다시 쌓을 계획을 발표합니다.<17~18> 유대인들을 모을 때에도 하나님의 선한 손길로 인도하심을 말하며 대적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실 것이라 말합니다.<18~20>

개혁과 갱신을 이루어낸 느헤미야. 느헤미야는 자신의 목적을 위해 조용히 관찰합니다. 그리고 객관적인 사실을 파악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방법을 차근차근 실행 해 나갑니다. 느헤미야가 이 모든 일을 한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슬픔을 가졌으며 하나님께서 이 일을 꼭 이루실 것이라 믿었습니다.

현실을 바로 보는 눈을 가지십시오. 현대 사회는 우리를 억누르고 무감각하게 만들어 믿음의 눈을 어둡게 만듭니다. 하지만 말씀을 깨닫고 현실을 바르게 본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을 바꾸기 위해 노력했고 현실은 개혁되었습니다. 말씀의 안경으로 현실을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수요기도회 / 저녁 7시 30분 / 인도 : 정재훈 목사 / 기도 : 이어람 집사

## < 사랑방공동체학교 소식 >

### 꾸러기학교

추석연휴를 보내고 온 꾸러기들은 연휴를 지낸 이야기를 하느라 시끌시끌하고 오랜만에 만난 반가움을 나누느라 바쁘고 한편에서는 정성껏 준비한 종이로 접어 만든 선물을 나누기도 합니다.

수요일에는 어린이 2학년들이 놀러와줘서 신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살짝 수줍은 얼굴로 서로 이름을 소개했지만 어느새 어울려 취향 따라 흠어져 여러 놀이를 합니다. 오전시간이 끝나고 쉬는 시간까지 쪼개어 조금이라도 더 어울려 놀아봅니다.

바자회 준비로 학부모님들도 수요일 목요일에도 학교에 와서 바쁜 시간을 보냈습니다. 꾸러기들은 학교에서 엄마를 만나 더 즐거워했습니다. 금요일 바자회 때도 부모님과 함께라서 더 즐거운 모습으로 왔습니다. 한바탕 잔치같은 바자회가 끝나고도 꾸러기들은 함께 노느라 바쁩니다. 서로들 바자회에서 산 장난감을 꺼내놓고 놀입니다. 어린이들이 판 장난감들을 한 보따리씩 사들고 신이 나서 함께 놀입니다. 부모님들은 꾸러기들이 노는 모습을 보며 함께 나눌 저녁을 준비합니다. 아이들을 같이 키우며 한 식구가 되어가는 부모님들의 모습이 보기 좋은 저녁이었습니다. < 교사 : 정승희 >

### 어린이학교

이번 금요일은 사랑방 학교가 주관하는 바자회를 하는 날이었습니다. 이날을 위해 각 가정에서는 바자회 물품을 내기 위한 집정리를 하였고, 학교 교사들과 학부모회 부모님들은 여러 가지 음식과 포장상품, 행사 준비를 했습니다. 어린이 학생들은 자신이 가진 물건중에 바자회 베품시장에 내놓을 물건들을 미리 가져왔습니다. 또한 마니또를 뽑아 상대방이 모르게 섬기는 행사도 진행했습니다.

바자회 당일이 되자 여는모임 시간부터 어린이들은 들뜬 모습이었습

니다. 혼자 다니는 친구도 없이 삼삼오오 다니며 서로 눈치껏 마니또에게 먹을 것을 배달하기도 하고 먹고 싶은 것, 사고 싶은 것을 고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느덧 1시가 되어 바자회 장소 한가운데 돛자리를 깔고 베품시장을 진행했습니다. 주 고객은 꾸러기이지만 어린이와 멋쟁이 손님들, 무엇보다 어린 자녀들을 둔 어머니 손님들이 많았습니다. 소리 지르며 물건을 홍보하였고 흥정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마지막 재고는 강매 아닌 강매를 시키며 선교를 위한 즐거운 모금을 이어갔습니다. 함께 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 교사 : 권재만 >

### 멋쟁이학교

낮밤의 일교차가 커져서 전체적으로 쌀쌀해진 주간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바자회와 다음 주에 있을 여행준비로 분주하게 보냈습니다. 그 와중에 수요일 저녁에는 함께 아시안게임 축구를 관람하며 응원하는 추억도 만들기도 했답니다. 목요일에는 공동심화학습 <한인 디아스포라의 역사와 미래>에서 각 조별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세계 각지에서 한인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발표하고, 또 자료준비의 성실성과 공유의 중요함을 배우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금요일에는 모두가 기다리던 바자회가 열렸습니다. 멋쟁이들은 본격적으로 전날부터 책상과 의자를 세팅하고, 물건들을 분류하는데 힘을 보탰습니다. 바자회 당일에는 이것저것 재미있는 이벤트 활동 코너를 진행하고, 또 깜짝 패션쇼 런웨이를 멋지게 선보여서 모두에게서 감탄과 박수를 받았습니다. 바자회 마무리 시간까지 함께 정리하면서 유종의 미까지 확실하게 거두는 멋쟁이들이 참 대견하고 멋집니다.

다음 주에는 한글날과 테마여행이 있습니다. 한글날의 의미를 잘 되새기고, 여행준비도 착실하게 해오길 바랍니다. 안전하고 양질의 여행을 다녀오도록 기도해주세요. 그리고 멋쟁이학교에서 별 같이 빛나는 최고학년, 6학년의 수시 실기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6학년들이 마주하는 다양한 도전에도 응원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 교사 : 이어진 >

## 모두의 바자회

새벽 4시. 알람이 울립니다.

눈을 번쩍 뜨고 일어나 남아있는 잠을 씻어내려 조금은 찬물로 세수를 합니다. 그리고는 곧장 주방으로 가서 오븐에 예열버튼을 누르고 당근 케익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온 집안에 고소한 빵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하나, 둘.. 오븐이 식을 틈도 없이 케익이 구워집니다. 자꾸 신이 납니다. 콧노래도 나옵니다. 왜냐하면 바로 오늘이 그토록 기대하던 사랑방공동체학교 연합 선교 바자회가 열리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연합 선교 바자회는 말 그대로 사랑방공동체 학교의 연합행사이기 때문에 선생님들뿐 아니라 학부모님들, 학생들. 그리고 공동체식구들 모두가 동참하는 아주 큰 행사입니다.

특히, 공동체의 모든 식구들은 마음을 모아 판매할 물건들을 정성껏 마련합니다.

누구는 하루 종일 생강과 계피를 끓여 수정과를 만들고, 육개장을 끓이고, 밥에서 고추를 따서 다집니다. 딱딱한 단호박과 씨름을 하고, 과일 껍질과 사투를 버립니다. 각종 소스들을 끓이고, 밤늦게까지 목공실에서 도마에 사포질을 하고, 포장 용기들을 씻고 소독하여 완성된 음식과 물건들을 정성껏 포장합니다. 모두 공동체 식구들의 손으로 이뤄지는 일입니다.

선교 바자회다 보니 수익금 전체는 선교지로 보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바자회에 더욱 열심히 참여합니다. 선교지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큼니다. 그러나, 오히려 바자회는 우리에게 더욱 큰 유익을 줍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각자의 최선이 모일 때 어떤 힘이 발휘되는지 알 수 있고, 함께하는 것을 경험하고 배워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한번 함께 이뤄가는 하늘나라의 삶을 경험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디아코니아사랑방 장영미 전도사

## <주요 정오기도회>

인도 : 이어진 전도사

찬송 : 411, 210

성경 : 하박국서 3장 13-19

말씀 :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중보기도 :

1. 세계평화와 선교를 위한 기도 <한국의 가족 관계들을 위해>  
추석은 혈육이 모여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관계를 갖는 명절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명절 기간에 이혼율과 가정폭력사건의 빈도수가 높아진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가정간의 화목과 사랑이 많아지도록.
2. 한국교회와 공동체를 위한 기도 <대만 선교를 위해>  
대만에서 선교활동을 이어가시는 노효종 선교사님과 그 가정, 그리고 현지에서 믿음의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
3. 지역사회와 공동체를 위한 기도
  - 1) 사랑방 선교바자회를 위해
  - 2) 사랑방공동체에 건강이 어렵고, 회복중인 지체들을 위해

## < 생활공동체 소식 >

사랑방공동체학교 연합 선교바자회에서 판매할 물건들을 만드느라 바쁘게 보낸 한 주간이었습니다.

루디아 공방은 공방대로 나사렛 목공소는 나무도마를 제작하느라 밤 늦게까지 불을 밝혔습니다.

많은 음식과 물건들을 만들고 포장하면서 몸은 힘들기도 했지만, 선교에 동참한다는 마음에 기쁘게 작업했습니다.

바자회 당일에는 새벽부터 늦은 시간까지 모든 공동체 식구들이 하나된 마음으로 손을 모아 열심히 참여했습니다. 식구들의 애씀이 선교지에서 복음 전파의 열매로 맺혀지기를 바랍니다.

< 장영미 전도사 >